



닥터 Q&A

미숙아란?

미숙아란 엄마의 자궁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출생한 아기를 뜻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임신 기간 37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를 미숙아 또는 조산아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산모 100명 중 6~7명이 예정일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들 조산아 중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아기를 저출생체중아라고 합니다.

미숙아는 엄마 뱃속에서 충분히 자라지 않은 채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 스스로 내·외적인 환경에 적응하고 조절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아기에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전문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미숙아들은 빨리 태어나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엄마젖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미숙아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최근 10여 년 동안에 국내의 미숙아 집중치료가 현저하게 발전하고, 병원마다 신생아집중치료실이 확충되어 생존율이 점점 높아져서 과거에 비해 작은 미숙아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숙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보호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미숙아의 생존 의지와 생명력, 묵묵히 아기를 응원하며 힘들때 같이 아파하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거나 아직도 아프지만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성장과정과 부모님들의 기쁨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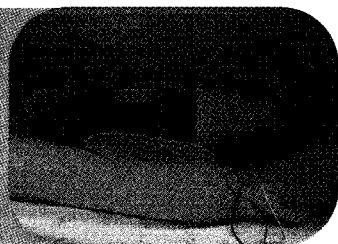
김 경 아

삼성제일병원 소아과 전문의

엄마의 자궁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출생한 아기는 전문적인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 의학이 현저하게 발전하여 생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인지도나 보호자들이 겪게 되는 정신·경제적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미숙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미숙아의 건강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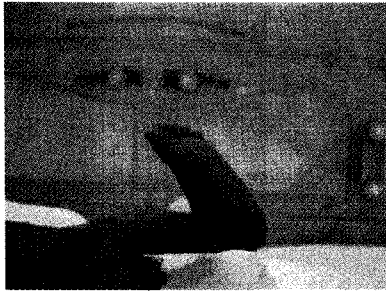


미숙아들이 겪는 어려운 점

미숙아의 출생 원인

→ 태아 : 쌍둥이, 태아 자체의 병(선천성 기형, 염색체 이상, 감염) 등.

→ 산모 : 임신 중독증, 고혈압, 감염, 영양실조, 자궁경관 무력증, 태반 이상, 태반 조기 박리, 조기 양수 파열, 양수 과다증 등.



미숙아들이 겪는 약점 증상

→ 체온 조절 : 미숙아는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여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미숙아를 돌보게 됩니다.

→ 호흡기능 : 폐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풍선 모양의 폐포(허파파리)가 작고 폐포를 퍼주는 단백질인 계면활성제(surfactant)가 부족합니다.

→ 간기능 : 간 기능 또한 미숙해 황달이 생기기 쉽고 더 오래 지속됩니다.

→ 면역기능 : 28주 이전에 태어나는 미숙아는 면역물질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해 면역체계가 약하며 병원체에 감염될 확률이 높습니다.

→ 위장 기능 : 위가 작고 장운동이 느리며, 소화 기능도 미숙하여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34주 미만의 미숙아는 젖을 빨고 삼키는 능력이 불완전하여 튜브혈관으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 심장, 혈관의 기능 :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의 동맥관이 닫히지 않아 약물치료 혹은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 신장기능 : 신장 기능이 불완전하여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미숙하고 영양소를 재흡수 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 호흡곤란증후군 : 호흡곤란증이 흔히 발생하며 인공호흡기로 숨 쉬는 것을 도와주거나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폐출혈이나 기흉 같은 합병증, 신생아 만성 폐질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뇌실 내 출혈 : 뇌실 주위의 뇌조직에는 많은 신경 세포와 혈관들이 많고 약해서 출혈이 쉽게 일어납니다. 체중 1kg 미만의 아기들 반 수 이상에게 나타나며 여러 차례의 뇌초음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미숙아 빈혈 : 미숙아들은 피를 만들어 내는 조절기능도 떨어져 있어 빈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혈과 함께 수유량이 늘게되면 일정한 철분제와 비타민을 복용해야 합니다.

→ 미숙아 망막증 : 망막 혈관의 성장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여 망막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생 시 체중이 작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으며 정기적인 안과검진과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과사성 장염 : 장에 대한 혈액 순환의 장애나 세균의 감염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항생제 투여 등 내과적 치료와 함께 정맥으로 영양제를 공급하게 되며 심한 경우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생아 패혈증 : 임신 후반기에 태반을 통해 어머니에게 받아야 할 면역글로불린을 받지 못하므로 저항력이 낮습니다. 아기들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모든 종류의 병원체가 원인이 됩니다.

→ 장기적인 신경학적 후유증 : 뇌성마비, 지능저하, 간질, 청력 및 시력장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